

사회



시골 작은 학교의 기적

송산분교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인 갯벌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송산분교 제공>

순천 별량 송산분교 폐교위기에 정식 초등학교 승격

폐교 위기에 놓였던 전남의 초미니 분교가 다시 초등학교로 승격된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순천 별량초등학교 송산분교를 송산초등학교로 승격하는 내용의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을 공고했다.

애초 송산초교였던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분교로 격하된 후 2007년 전교생이 11명까지 줄어 폐교위기가 깊어지자, 올 7월 현재 전교생이 123명으로 늘어 분교의 위상을 되찾게 됐다. 조례안이 오는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이 학교는 내년 3월 분교로 승격된다.

지난 1982년 이후 전남에서 718개 학교가 문을 닫거나 111개교가 분교로 격하됐으나, 순수하게 학생수가 늘어 분교의 지위를 되찾은 곳은 이 학교가 유일하다.

송산분교가 다시 활력을 되찾은 계기는 지난 2008년 '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바탕이 됐다. 교감 포함 교직원 7명은 배움터를 지키기 위해 '자율과 협력'으로 학교 운영

2007년 전교생 11명 교사·주민 헌신 노력 교과프로그램 확보입소문 전학생 줄이어 학생 수 이젠 123명

방향을 정하고 교과 프로그램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학습 프로그램은 계절학교, 토요프로젝트 학습, 주제탐구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교과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정규 교과도 짜임새 있게 운영된다.

계절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예·도에·종이접기 등 문화예술 체험 활동 등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주제탐구 프로젝트는 학생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정해 스스로 연구·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자율 수업방식이다. 수업시간도 80분 1

교시제로 운영된다. 대신 쉬는 시간은 30분으로 정해 학생들이 충분히 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방식도 철저한 참여형이다. 교사·학생·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송산한자리' 모임은 매일 한 차례 모여 학교 현안을 논의, 결정한다. 학생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톱보이다.

이 학교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2007년 11명이던 전교생이 2008년 48명으로 급증, 현재 123명이 됐다. 이 중 110명이 순천 시내에 사는 통학생들이다. 통학버스는 학부모들이 각축한 돈으로 운영된다. 오는 2014년까지 입학원서를 미리 제출한 학부모도 있다.

전락기 교감은 "학교의 모든 성원들이 배움터를 지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분교로 승격되는 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맘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학교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오늘 더 춥다

광주·전남 일부 아침최저 영하 1도 찬바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듯

27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일교차가 10~16도 가량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이라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6

도, 낮 최고기온은 13도~17도가 예상된다.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내륙과 산간지방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관리 및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교육비리 신고 보상금 1억원

전남도교육청 조례제정 추진

전남도 교육청 관내 교육부조리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의 비리·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 교육청이 각종 비리 신고에 대한 내·외부 고발 제도를 운영했으나, 보상금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보상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며, 한도액은 1억원이다. 지급액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허용액의 10배 이내,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하다. 신고대상 부조리는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향음,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위법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교육청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막거나, 알선·청탁하는 것도 포함됐다. 신고 대상 공무원

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교직원 등이다. 비리 신고는 전자우편, 교육청 홈페이지의 부조리신고 창구 등을 이용하면 된다.

도 교육청은 조례안을 곧 전남도의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같은 달 공포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ouch 1 card and SK cards, featuring a person on a horse and a credit card image.

Weather forecast for today,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Korea.

Advertisement for a 'Bukgu-chung Gas Station' administrative review, mentioning a gas station and a truck.

Large advertisement for 'K' International Insurance,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a social science competition, listing the location, dat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conference, listing participating schools and the date.